

인기 치솟는 전남産 친환경농산물

향토기업·쇼핑몰 회원 늘고 수도권 납품 급증 월 매출 전년보다 2배... 학교급식 연 1천억 이상

전남산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업과 유통업체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수도권 학교에 대한 친환경 급식 물량 확대와 향토기업의 프랜차이즈 매장 확산, 전남도 종합쇼핑몰 '남도장터'의 유기농식품 소비 회원 증가 등으로 도내 친환경 생산업체와 유통업체의 매출이 전년에 견줘 30~100% 늘었다.

친환경농산물 급식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내 보육시설·유치원·초중고교·특수학교에 100%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온 것이 모범 모델로 확산,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3월 한 달 매출 100억원을 달성했다.

이같은 매출액은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50억원)의 2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도권의 경우 현재 전남도내 58개 업체가 21개 자치구내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전남도는 하반기 친환경 농산물 급식 참여 학교 수가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 연간 학교급식 매출액 1000억원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남도 종합쇼핑몰 '남도장터'의 유기농 식품 멤버십 회원 수도 5000명으로 지난해에 견줘 100% 늘어나는 등 친환경 농산물을 찾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이 대형 마트나 친환경농산물 전문 판매장

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역 대표 업체에서 취급하는 쌀·잡곡·채소, 유기가공품 등을 온라인을 통해 살 수 있어 인기다. 전남도는 향후 공무원 복지카드를 활용해 유기농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매출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지역 향토기업의 친환경 농산물 프랜차이즈도 친환경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장성 한마음공동체의 경우 전국 매장이 80곳에 이르고 장성 화산농장은 11곳에 매장을 마련해 친환경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다. 또 담양 녹색장터도 9곳의 매장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지역 향토기업의 전국 판매장만 100개에 이른다. 이

들 업체들의 매출액도 전년도에 비해 30% 증가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도권 학부모와 학생 등 급식 관계자들을 초청, 친환경 농업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향토기업의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확대 및 대형 유통업체 등 고정 납품처 확대에 힘써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천·황룡강 합류지점 환경 조사

4대강사업 대응 하천환경 시민 공동조사단이 29일 극락교 광주천·황룡강 합류지점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단은 전남부터 광주호 녹이기 사업이 진행 중인 담양군 대전면 8공구, 용산교, 산동교 등 영산강과 지천 공사현장에서 교각과 보 시설을 안전문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한, 대학등록금 완화 'B학점 이상' 혜택

황우여 "6월국회서 수석교사제 입법화"

한나라당은 29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평균 B학점 이상'에 한정하기로 했다.

또 부실대학에 대한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으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병행, 오는 2015년부터 대학 신입생의 수를 줄이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29일 등록금 부담 완화와 관련, ▲소득 하위 50%에 대한 소득구간별 차등 국가장학지원제도의 대폭 확대 적용 ▲대학생에 대한 도덕적 책무 부과를 위한 학점 기준 유지 ▲대학 등록금의 투명공시 및 산정, 부실대학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병행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장학지원제도의 대폭 확대를 통해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90~100%를 해준다면 그보다 상위계층은 50%→40%→30%씩으로 줄여 대학생을 둔 가구의 하위 50%에 장학금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학생들에게도 최소한의 도덕적 책무를 주문하고자 하는데 평균 B학점이면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만큼 이 기준을 유지하고자 한다"며 "무리한 기준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부실 대학은 장학금을 주지 않으면서 점진적이고 자연스럽게 구조조정하려 한다"며 "지급

최저 교육여건의 사람대 17곳이 취업 후등록금상환제(ICL)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등록금 부담 완화에서도 그 정도 대학은 제외하고 점진적으로 그 수준을 높여가면 2015년부터는 신입생의 수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이날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수석교사제는 많은 교사들의 염원"이라며 "여야 협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 김진표 신임 원내대표도 2009년 수석교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중·고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을 발의한 바 있어 여야의 합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방이전 80개 공공기관 청사 연내 착공"

청와대 밝혀... 지역업체 참여 확대·이주직원 지원

청와대는 29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발전 사업과 관련,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80개 주요 공공기관의 청사 건설공사를 올해가 가기 전에 모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신중호 지역발전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정책소식지를 통해 "(청사 건설이) 일부 공공기관의 통폐합,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당초 일정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앞으로 범정부 체계를 구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우선 금년말까지 80개 기관의 청사를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방이전을 가시화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사 건설 과정에는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비서관은 "혁신도시의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이전하는 직원들을 위한 아파트, 학교 등 정주여건도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독려하겠다"면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고 가족과 함께 지방에 잘 정착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도 구체화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지역의 관련 기업, 지역 대학 등이 협력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산업화하는데도 역점을 두겠다"면서 "기존 도시와 인근 도시들이 상생 발전하는 방안도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달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지도 메인하지 못한 기관이 21곳, 설계에 착수하지 못한 기관이 9곳"이라며 "내년 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부처별로 소속 기관의 지방 이전에 관심을 갖고 독려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

여수박람회장서 원앙어선 타고 참치잡이

내년이면 남태평양이 아닌, 여수에서도 참치잡이를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박람회개최 열리는 여수 신항과 오동도 일대에 모두 26억원을 들여 내년 2월까지 각각 3000㎡ 크기의 육상과 해상 수산체험장이 조성된다.

육상체험장에서 관람객들은 모형 참치잡이 원앙어선에 승선, 4D와 항공 시뮬레이터를 통해 남태평양의 거친 파도속에서 참치를 잡는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신항·오동도에 체험장 4D·시뮬레이터 생생

있다. 손맛 느끼는 것을 제외하면 거친 파도에 심하게 요동치는 배에 올라타 참치를 잡는 체험도 가능하다.

잡은 고기의 냉동저장 및 가공 과정도 보고 외부 전시장에는 죽 방법, 어전 등 전통 어구 미니어처가 설치된다.

해상체험장에서는 실제 어선에

올라타 승선 방향키를 조정해보는 가 하면 어망기 등 어로장비와 도구들을 볼 수 있고 어선 옆 미니 양식장에서 참돔·우렁챙이·전복 등을 관찰할 수 있다.

이외 오동도 주변에는 30m×90m 규모의 이동식 바다숲도 조성, 그 안에 가두리를 만들고 아열대 관상어를 비롯해 대형 어종인 방어 등을 구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여수박람회는 내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93일간 열린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석해군 선장 총격 아라이 무기징역

삼호주요리호 석해군 선장에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살인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2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또 아롤 브랄렛(18)에게는 징역 15년, 압디하드 아만 알리(21)와 압둘라 알리(23)에게는 각각 징역 1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7일 아라이가 석 선장에 총격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아라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는 오는 6월1일 혼자 일반재판을 받은 뒤 당일 선고받게 된다.

/연합뉴스

김정일 방중 성과 축하연 눈길

김정은 후계 입지 다지고 견재 보여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 방중 성과 축하공연이 벌어지고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국경까지 부친을 마중 나가는 등 전에 없던 일이 속속 등장해 눈길을 끈다.

이 같은 조치는 김 위원장의 견재를 과시하고 중국방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후계자 김정은의 위상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 위원장의 중국 비공식방문 성과를 축하하는 조선인민내무군 협주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이 열렸고 김 위원장과 김정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귀국한 다음 날 방중 성과를 축하하는 행사가 열린 것으로 2000년부터 이뤄진 김 위원장의 일곱 차례 방중 가운데 이 같은 '자축연'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 반년 여 밖에 남지 않은 강성대국 진입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통해 정치·경제·외교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내외에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이 고모인 김경희 당 공명당 부장 등을 이끌고 국경까지 나가 부친을 마중하고 북한 매체가 이를 공식적으로 알린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후계자가 마중을 나가는 '이벤트'로 김 위원장의 방중 효과를 극대화하고 김 위원장의 방중 기간에 후계자가 북한을 '무사히' 지켰음을 내보이면서 김정은의 위상을 과시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연합뉴스

쌍촌동 맛집 월화수에서 정갈하고 깔끔한 퓨전 한정식을 맛보세요

고객을 소중히 여기는 고품격 퓨전 한정식 소중한 자리를 맛과 정성으로 고객님의게 제공합니다. 언제나 최상의 맛과 품질로 친절하게 고객 한분 한분께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변함 없는 서비스와 맛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 화 수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837-28
예약전화 062-385-8080~1

↑ 승정리 역서스 월화수 5·18학생 교육문화회관 5·18기념 문화회관 ↑ 시청
지하철 1호선 34번출구
↓ 시내

2010 大韓民國 신지식인 대상 수상

오리요리 전문가 박만순의 상차림

- 눈, 코, 입을 동시에 즐겁게 하는, 즉석 불꽃구이
- 제철 야채 향암육수, 샤브샤브
- 산야초 효소, 오리요리
- 궁중요리, 표고 버섯탕
- 염도가 낮은, 밥도둑 찹갈 등

월드덕 추천요리

- 즉석 불꽃구이
- 월드덕 찹갈
- 한방오리구이
- 약오리 백숙
- 향암육수 샤브샤브

수상배경
2010. Korea Food Expo.COEX 웨프의 상차림 월드덕 브랜드 요리출품

- 광주1등맛집 • 다담회 한국맛집 • (주)외식공간 오리요리 최고맛집
- 우리은행 우리나라우리명가 • 광주은행 소호명가

"발효 효소"백초, 술순 상시준비
단체모임환영

점심특선
天下第一 표고 버섯탕 10,000원

월드덕 예약문의 062)671-2177,1177 (위치:봉선동 쌍용APT 사거리)